

“시진핑 종신집권 개헌은 역사의 퇴보”

중국 내 문단·과학계 비판 삭제·구금 언론통제 잇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면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해 시 주석이 장기집권할 길을 열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모가 모두 혁명원로인 ‘홍얼다이’이기도 한 저명 작가 라오우이는 공개 성명을 내고 “마오쩌둥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당사오핑의 개혁개방으로 겨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이를 알기에 헌법의 임기 규정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역사의 퇴보로서,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중국 역대 최고지도자 집권기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저명 물리학자 허위슈는 홍콩 빈과일보에 “위안스카이는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결국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을 비판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허위슈는 “개헌은 옳은 일을 위해서라고 하나, 더 많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과오를 저지르기 마련”이라며 “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명을 바로 잡을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는 홍콩 명보에 “중국인은 개인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 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중국 봉황망은 개헌을 앞두고 인민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이 곧바로 삭제당하는 공욕을 치렀다. 이 사설은 “통치의 현대화는 공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기나긴 여정”이라면서 “이러한 역사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표들은 엄숙한 역사적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안후이성의 전 검찰관 천량선, 반체제 인사 황팡메이 등이 ‘차기 후진하고 있다’(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뜻) 등 개헌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관련 학자들은 개헌을 옹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영도’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강하고 응집력 있는 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개헌 지지 논리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문인 재상 장열

장열(張詠, 667-731)은 하남성 낙양 출신으로 자는 도제다. 현종때 재상으로 발탁되어 군제개혁 등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문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개성이 강하고 의지가 굳센 열혈남이었다. 무축전때 관에 나가 태자교서에 임명되었다. 중종때 황문시랑이 되고 예종때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었다. 일찍이 산서성 하곡에서 당나라 군대와 오랑캐 강족이 충돌하자 20여기의 기병만 거느린채 강족의 본거지를 직접 찾아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과감한 성품의 인물이었다. 703년 축전황제 말년 종신 위원총의 역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 축전의 종신 장왕중은 봉각사인 장열을 끌어들이어 위원총의 죄를 고변케 하

도 겸임했다. 정적 우문유이 천하의 호구에 거짓이 많다고 주장하며 호적을 재조사하는 괄호제를 주장했다. 호적을 속인 자를 엄벌에 처하는 제도였다. 괄호제 실시로 80만여 호구가 새로 파악되었다. 그는 괄호제를 ‘가혹한 증세법’이라고 반대했는데 이로 인해 실각하였다. 후일 종신 장가정과 국정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황제가 장가정에게 재상의 대임을 맡기자 절치부심 재기를 꾀꾸었다. 장가정이 동생인 금오장군 장가우의 뇌물수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재상을 직접 찾아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과감한 성품의 인물이었다. 703년 축전황제 말년 종신 위원총의 역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 축전의 종신 장왕중은 봉각사인 장열을 끌어들이어 위원총의 죄를 고변케 하

뛰어난 문사... 정적 많아 쓸쓸히 퇴장

였다. 축전이 국문하기 전 송경은 장열에게 말하기를 “명예와 의리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죄를 받게 되면 귀양을 가겠지만 그것은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내전에서 힘껏 다투고 그대와 함께 죽겠습니다. 만대가 지나도록 우리러보게 되는 것이 이번의 행동거지에 달려있습니다.” 장열은 계속되는 황제의 추궁에도 “신은 위원총의 역모한 흔이 두려워 감히 억지로 꾸미지 못하겠습니다”라며 일관되게 영모 혐의를 부인하였다. 결국 남쪽의 결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현종이 재위에 오르자 공신의 한명으로 중용되었다.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고모 태평공주 일파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예종은 이들이 임치왕 이용기와 여동생인 태평공주 사이에서 우유부단하여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조정이 혼란스러웠다. 이때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다스리는 감국(監國)의 자리를 이용기에게 넘겨주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를 계기로 이용기는 권력을 장악해 태평공주를 숙청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공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현종 초 중서령에 임명되고 영국공에 봉해졌다. 동중서문하삼품과 병부상서를 겸임해 재상 반열에 올라섰다. 북방 세력을 방어하는 삭방군절도사

(職分田)를 없애고 농민들이 직접 정열에게 말하기를 “명예와 의리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죄를 받게 되면 귀양을 가겠지만 그것은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내전에서 힘껏 다투고 그대와 함께 죽겠습니다. 만대가 지나도록 우리러보게 되는 것이 이번의 행동거지에 달려있습니다.” 장열은 계속되는 황제의 추궁에도 “신은 위원총의 역모한 흔이 두려워 감히 억지로 꾸미지 못하겠습니다”라며 일관되게 영모 혐의를 부인하였다. 결국 남쪽의 결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현종이 재위에 오르자 공신의 한명으로 중용되었다.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고모 태평공주 일파를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예종은 이들이 임치왕 이용기와 여동생인 태평공주 사이에서 우유부단하여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조정이 혼란스러웠다. 이때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다스리는 감국(監國)의 자리를 이용기에게 넘겨주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를 계기로 이용기는 권력을 장악해 태평공주를 숙청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공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현종 초 중서령에 임명되고 영국공에 봉해졌다. 동중서문하삼품과 병부상서를 겸임해 재상 반열에 올라섰다. 북방 세력을 방어하는 삭방군절도사

“신선을 만나지 말았으니 마음은 호수를 따라 더불어 유유하여라.” 그가 악주로 좌천되었을 때 지은 작품의 일부다. 그러나 시와는 달리 한평생 정치에 대한 의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731년 세상을 떠나자 문정(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시리아 동구타 1일 5시간 휴전...대규모 탈출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지역인 동(東) 구타에 정부군의 포격이 가해진 후 주민들이 차량에 가재도구를 싣고 피신하고 있다. 정부군과 반군 간 강경대치로 생지옥으로 변한 동구타에서 11일 처음으로 안전통로를 통해 52명의 주민들이 주거지 미스라바를 벗어났다고 러시아 군당국이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27일부터 동구타에서 매일 5시간씩의 인도주의 휴전을 시행한다고 밝힌 이후 주민들이 안전통로를 이용해 대규모로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문서조작 등)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집권 5년 최대 위기...개헌 독주 막히나 日 재무성 사학비리 문서조작 파문에 대국민 사과

그는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가까운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규명된 단계에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을 재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

후 정례 브리핑에서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총리 관저에 대한 손타쿠(村田) 스스로 알아서 뒷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무성은 80여 쪽의 보고서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4건에서 문서조작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문서에는 협상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사불대폭 조정가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될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